SSN 충청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do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신문윤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8-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광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SSN 충북하니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자립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광단로 87, 302호

제 227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충북에도 주 52시간 근로시대 개막

현행 68~52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충북 300인 이상 사업장 7만5722명 개정법 적용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
일부선 경영악화 우려

오는 7월부터 충북에도 주(7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대가 열린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2015년 기준 총 사업체 수는 12만1493개이며, 종사자 수는 64만8454명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112개(0.1%)에 근무하는 7만5722명(11.7%)이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을 적용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로 SK하이닉스 충주공장, LG화학 청 주 오창공장 등 대기업들과 일부 중견기업들이 포함된다.

또 2020년 1월 1일 부터는 50~299인 사업장 1576개(1.31%)의 15만2364명(23.5%),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 20만3374개(16.8%)의 246만5344명(37.8%)이 적용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되자 우려의 시각도 커지고 있다.

도내 기업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 어렵고 근로자 미스매칭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청주의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태문에 하리를 졸라매게 됐는데,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면서 그렇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임사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 현장이 더 심각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당장 각종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근로자들 가운데도 불만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는 근로시간이 줄어 저녁먹는 일이 조금 더 보장되기는 하겠지만, 잔업과 특근에 붙는 수당까지 줄게 되니 생계유지도 걱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경실련 측은 근로시간 단축 방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근로시간 단축 원칙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청주경실련 측은 또 휴일 근로 중복할증제 폐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구 로 시 간 단축 부작용 해결을 위한 주가지수 조치와 입법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항목	기존	변경
주당 근로시간	68시간(법정 40시간+법정연장근로 28시간)	52시간(법정 40시간+법정연장근로 12시간)
주당 근로시간	150%	150%(시간 초과시) 200% 300인이상 2018년 7월 1일 50~299인 2020년 1월 1일 5~49인 2021년 7월 1일
적용사기		300인이상 2020년 1월 1일 30~299인 2021년 1월 1일 5~29인 2022년 1월 1일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사기		300인이상 2020년 1월 1일 30~299인 2021년 1월 1일 5~29인 2022년 1월 1일
우체한 근로 특례 업종	26개	5개(연속휴식시간 최소 11시간)

■ 도내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수와 종사자수(다른 통계청 참조)

근로시간 단축시작일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2018년 07월 01일	300인이상	112(0.1%)	75,722(11.7%)
2020년 01월 01일	50~299인	1,576(1.3%)	152,364(23.5%)
2021년 07월 01일	5~49인	20,353(16.8%)	245,344(37.8%)
적용제외	1~4인	99,45(81.9%)	175,024(27.0%)

충북도, 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아동센터아동보호기관 등 직원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 지원키로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신규사업인 힐링프로그램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여행, 힐링문화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경조사, 병가, 연가 등 종사자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왔다.

그 동안은 시범적으로 생활시설과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이용시설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위탁사업인반점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 가족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성폭력 피해자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많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인력풀로 관리하던 파견인력에 삶근 파견인력 1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힐링프로사업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시설협회와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예방을 위한 휴식 지원사업인 힐링프로사업과 복법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의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안전은 생명"

3회에 걸쳐 900여 종사자 대상
사례중심 안전관리교육 확대실시

충청도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2월 27일부터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담당 공무원 등 총 8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난복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충북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2월 9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책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소방, 전기, 가스,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련교육으로 구성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은 지난해 4월에도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교육시기를 앞당겨 실시하고, 교육방법을 좀더 생동감있게 개선, 사례 파트너 및 서포터즈 운영, 지역기록 상 타 교 육 자 조모집 지원, 기억자기 사업 등 24개 지역별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에맞 및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맞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간의보조소, 공익적 매년터, 노인회 시군지회, 경로당공역지원센터 업무협약(MOU)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①지역관리사업 홍금광 및 보건소지역안심센터는 9986명복지나누기 여가프로그램을 통한 노인회 및 경로당공역지원센터의 치매 선별검사 공동진행(순차적 전수조사, 고령자 우선) ②광역지역센터는 여가프로그램 강사 지역교육, 홍보 등 지원 ③ 노인회 시군지회 및 경로당공역지원센터는 여가프로그램(9988행복나누미) 강사 활용 치매 선별검사를 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노인일자리 크게 늘린다

올해 548억원의 예산 투입
공공분야 등 2만2천여개 창출

충북도는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기존의 실버세대를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황혼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골드세대 어르신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올해 5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18,686명보다 1,559명이 늘어난 22,045명(공공공 20,045명, 민간 2,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금전적인 도움과 사회활동의 참여와 봉사하는 기쁨을 드리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분야와 어르신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으로 크게 2가지로 추진된다.

먼저 공익활동 노인일 자리 (17,182명)로 복지노인마나 거동불편 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을 방문해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행복지기미사업,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시장형 노인일자리(1,563명)로는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맞놀사업 등 공동작업형 사업, 식 품 제 조 판매, 시니어 카페운영 등 제조판매형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등 전문서비스형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인력파견형(1,300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능력 있는 어르신을 파견하고 임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이다.

아울러, 또는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일자리 참출기업 인증제를 통해 어르신들 고용한 주수기업 20개소를 인증지원하고 민간일자리 2,000여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7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치매치료·돌봄·관리 쉽고 편하게

충북도, 보건소 등과 업무협약
환자진 단 치 료 돌봄등 추진

충북도는 치매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보건소, 중앙치매센터, 노인회 시군지회, 경로당공역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부에서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 20) 및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환단하고 인턴한 치매 환자 진 단 치 료 등 돌 봄,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중앙치매센터 운영으로 연 구 통 계 및 기술을 활한 치매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3천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9988행복지기 미나누미 운영,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치료관리(마재비) 및 돌봄제공 지원, 치매극복 도민공기대회 및 실버합창대회 개최, 치매 파트너 및 서포터즈 운영, 치매가족 상 담 교 육 자 조모집 지원, 기억자기미사 사업 등 24개 지역별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는 치매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간의보조소, 공익적 매년터, 노인회 시군지회, 경로당공역지원센터 업무협약(MOU)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①치매관리사업 홍금광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9986행복나누미 여가프로그램을 통한 노인회 및 경로당공역지원센터의 치매 선별검사 공동진행(순차적 전수조사, 고령자 우선) ②광역지역센터는 여가프로그램 강사 지역교육, 홍보 등 지원 ③ 노인회 시군지회 및 경로당공역지원센터는 여가프로그램(9988행복나누미) 강사 활용 치매 선별검사를 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제 봉사로 저축하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제천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653-5025
청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265-5305

노인 돕기 봉사 포인트 적립
노후연 돌봄받는 제도 시행

어르신을 위한 봉사로 포인트도 적립받고 노후에 돌봄으로 돌려받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상조복지협의회에서는 3년전부터 봉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본인이 사용하거나 부모님 혹은 제 3자에게도 기부하여 노후에 무료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어르신 봉사 저축은행)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전국 2개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2017년부터 전국 50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어르신 돌봄봉사자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상호부조의 나눔을 통해 방임, 학대,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돌봄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보은, 충북 최초 고교 무상급식

예산 6억8070만원 편성… 고등학생 860여명에 혜택

친환경 쌀 가격 지원도… "교육비 부담↓ · 식사 질↑"

보은군은 지난해 충북도내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군은 무상급식을 위해 총 6억8070만원의 예산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도움 없이 전액 순수 군비로 편성했다.

이보석 3월부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86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어 고등하생들은 학부모들은 연 79여만원 정도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쌀 가격 인하에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친환경 쌀과 나머지 가격의 차액분만 지원했었다.

올해부터 군은 29,789,500원을 지원해 관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46개 교육기관에 다니는 3415명의 어린이 와 동소년에게 우수농산물로 급식을 한다.

군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해 하는 급식비의 의 또한 놓아줄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정상혜 보은군수가 2일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첫날 보은고등학교를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옥천 '장애아동 일제 조사' 실시

생활 실 태 복 지 욕구 확인해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

옥천군은 5일부터 말일까지 군내 거주하는 18세 이하 장애아동 76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아동 일제조사 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장애로 인해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족의 생활실태와 아동 가족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 정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공기업으로서 복지재단 갈등 해소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관내 9개 읍면면에서 함께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장애아동 가정에대해 직접 마다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파악된 정신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어 서해진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작년보다 2억6천만원 늘어 42억5천 만 원 1인당 40만원

전천군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매년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 대비 2억 6천만원이 늘어난 42억 5천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1월 2일과 2월 9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지원규모를 확정했다.

군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보조는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과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데 주력할 원하는 등 지원원칙을 확대하여 관내 1학년 입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송기섭 전천군수는 "전천군은 인재육성 사업 및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천군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진천군의 교육도시 위상제고 및 교육 만족지수 1등 진천군을 함께 이룩노력해갔으 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학생 1인당 40여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복지대비서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증평군의회 홀몸 노인 지원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 7명 의원이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지 설 지원 조례안이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1조본 군의회 입시된1992-27일에서 시 의 의 결 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공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동 거주 시 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 행 공 동 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준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 시설 지도 점 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 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 고령사회 에 해당된다 며 노인 고독 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충주 "높아지는 자살률 막아라"

심리상담 정신의학 소양교육 등 생명존중강사 교육

충주시가 생명존중(자살예방) 강사를 양성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25.6명으로 충주시는 이보다 높은 35.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7.5명 보다 7.8명이 증가한 것으로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충주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부탄대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시 민들대대로부 터생명교육 3개소에 생명의 다리를 조성했다.

올해 충주시는 정신의학 소양교육 강사 30명도 양성해 초중고 학생 934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사상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충주시청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올해도 생명존중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2월 21일부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양성교육은 정신건강위원 3 전문인의 아동 청소 년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본소양강의와 사례별 및 생명존중교육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활력 가득한 영동 만든다

웃살림 등 생활체육 기반구축

영동군은 군민의 건강증진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반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들어 군이 군민 여가생활과 건강증 등시에 정기고, 지역 육법전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결과, 영동군은 생활체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군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군은 지역민을 부지레 가야삶지구 웃살림 다목적구장 설치, 키노카와 체험장 조성, 군민 운동장 트랙보수 등 탄탄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또 양산면 가곡리 다목적구장 조성, 상촌면 인조잔디 게이트볼 장 조성, 천태면 개이트볼장 조성, 상촌면 웃살림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시설 보강과 등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음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 챙겨요"

음성 인권실태 조 사 안전망 강화 애로사항 소통창구 마련

음성군은 2월 26일부터 1주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성희롱 폭 행 성 추행 언 어 폭 력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과 일부 언론에서 제정 시설 성희롱 추행 사건이 제기되는 논란이 되면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종사자들의 상호별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시설로 종사자 경험 또는 목격한 인권침해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3월 중 충북장애인권리옹호기관을 통해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 편 시설폐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임을 강화하고 고 충 불만 애 보사 항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배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김 춘 길
(286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청주시 비정규직 174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681명 중 25.6% 4월 1일부터 전환

청주시가 오는 4월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1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청와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현장 확인을 했던 실태조사 후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청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월과 4개구청 등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681명 가운데 25.6%인 174명을 4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 혔다.

청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지난 12월부 전체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 시 지 속 적 업무를 중심으로 전환대상자 174명을 선정했다.

이중 20대 30대가 94명에 이르는 등 젊은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전환대상 직종별 인원은 보건소의 간호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등 55명, 도서관의 사서보조원 63명, 농업기술센터 보조원 19명, 교육소의 행정보조원 30명, 어린이집 내 부 관리사 생명, 지역사회복지시설 2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이다.

임금체계는 고용노동부 임금표준안을 적용하며, 채용방식은 2017년 7월2일 제지자 전환기준을 원칙으로 했다.

충북도-월드비전-동양일보 MOU

충청북도도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월드비전, 동양일보 등 3개 기관과 1일 충청북도 청사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서에는 이시종 도지사, 김병문 교육감,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조홍표 동양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기관간 구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사람이 점심나누기 캠페인 등 모금사업,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 국제구호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아동 가정 장 지 역 서 비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단체로 아동에서 지역 복지, 사람의 도시락, 위기아동지원 등을 통해 사랑과 나눔이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 33개국에서 국제개발과 교육, 재난 식량 위기 등에 힘을 쏟고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드비전 충북본부에서는 우리도 교류지역인 베트남 (평남성), 캄보디아(모니룩이)시에 식수보급과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함께 교류지역 교 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승호 월드비전 회장, 조홍표 동양일보 회장, 이시종 도지사, 김병문 교육감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충북광역두드림

(주)에스앤주, 디스산업 진천선수, GS리테일 발전휴먼트, 롯데칠성 음료센터, CJ나눔 계룡센터, 스타벅스 바롬점1, 대상 청정원, 대상 송이지선센터, 롯데시 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식품농협, 나눔축산 공동분부, 충청센터, 한우협회, (주)바나산, (주)대순주 도, 롯데주도, 제라주로, 디자동(대종점), 송림주도, 청주주도, 한우협회, (주)바나산, (주)대순주

음성군, 일자리창출 선도 '충북 1위'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 52%로 전국 3위 차지

올해 270억원 예산 투입… 고용률 74% 목표

음성군이 충북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제공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음성군의 고용률 15~64 OECD 비교기준)이 도내 최같은 68.7%보다 5% 높은 73.7%로 도내 1위를 기록해 충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연령층 청년층15~29 의 고용률은 52.1%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음성군은 군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분야의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15~64 74%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성군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 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을 추진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기업에 일손을 지원하는 생산직 일자리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교육훈련,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각종 의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 업을 적극 지원하고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 원해 이들이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어성취업지원기관 등 일자리 인프 라를 활용해 구인자에게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구직자에게 는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구인 구직 난을 해소해 나가고, 취업박람회 개최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번영을 통해 기업체 홍보, 구인 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눈높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촉진과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충북 청년내일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만족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과 영세기업의 경쟁력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인 조성과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으로써 수도권 내 우량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노사민정협의 운영, 노동인권함량 상담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옥천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확대운영

교통약자 수요에 맞춰 개인택시 2대 투입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충북 옥천군의 콜택시 서비스가 3월부터 확대된다.

옥천군은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개인택시 2대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만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콜택시 6대로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처음 운용 연 죽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6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 중이다.

충자사 대표교통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타사 소관과 심사를 통해 센터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대상이다.

이용 횟수는 2014년 6천여건, 2015년 1만여건에서 2016년도에는 1만2천300여건으로, 운영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해는 1만2천300여건으로 한 해에 34건씩, 하루 1대 당 하루 5.7회 운행한 셈이다. 그만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있어서 보호자와 다를 바 없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이동수단이 됐다.

이렇게 이용하기 많이 는데다 특히나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는 시전 예약도 꽉 차,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 콜택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덤덤중촌대수 마저 5대 기준에서 1대가 모자 출퇴근고 있어 콜택시 증차 또한 없지 않았던 옥천군은 선 터 내 비롯해서 승객들이 탈 수 있도록 관내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군은 이번 조치가 차량 보신을 통해 이용자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점차해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시실(☎043)-257-100에로 가능하며 이용금액기본 5km에 1천500원, 1km 초과 시 200원씩 추가 과 운영상시도 됨임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확대 지원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줄어

급년부터 희귀 난치 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병, 모야모야병 등 133종 질환인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부담 관련 액과 자동휘발유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 구구입 비 호 흡 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 정 유 법 기 대여료 건행비 특 수 식 이 구입비 등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 가구의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항구역의 함 주시의원 의장, 정상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김현숙 우암사니어 협회 관장 등 6개 시니어협회 관장, 이해성 청주상당노인복지관장 등 5개 노인복지관 관장 등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복지관에서 손뜨개를 갈고 닦은 어르신들의 민요 와 실버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합동 영상물 상영하고 청주시립무용단의 화조, 설장고, 장단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뮤럽상, 김규선 어르신은 일하는 노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역할 수행, 새로운 노인문화창조에 이바지하며 삶가 좋은 지역 만들기 앞장 들 5개 시행의 결의 담은 일하는 노인 선언문 낭독으로 20시부 일자리사업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18년 청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발대식이 22일 청주 어트홀에서 활기찬 청주, 행복한 노후, 일하는 시니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됐다.

청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연합발대식 개최

청주시는 2월 22일 청주어트홀에서 활기찬 청주, 행복한 노후, 일하는 시니어슬로건으로 2018년 청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

보은·옥천군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출산축하금다자녀키모자건강지원 정책 추진

보은군과 옥천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보은군은 5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처 국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보연금 보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은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보연금 연금보험 지원사업 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7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신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군은 매월 보험료를 납보험자 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한편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셋째아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키모자세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보연금보험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노력을 위해 지원하고, 기존중이소 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하여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 중증 이상인장애등급 1~3급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 재산조 사가 면제되어 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주시 "이젠 육아 고민 덜어드려요"

공동육아나눔터 밤 9시까지 운영

충주시가 여성친화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공동육아나눔 터 운영을 밤 9시까지 확대했다.

시는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해결하고 상호 육아 정보를 나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연수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시민들의 인기를 얻으며 이용이 꾸준히 늘어 왔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가족캠핑이 운영 강좌를 위한 부모교육, 요리법 담임이, 미술놀이 등 상시프로그램과 부모와 자녀 참여형 가족캠장이 활동 등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장소 1층에는 희망모닝 강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희원재로 운영되는 희망모닝강도서관은 1만2천원의 연회비만 납부하면 월 4권(1점)씩 연체료지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1월2천 비용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아도 돼 육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현재 아간돌봄이 그룹과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참여자도 도입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위치한 어린이체험관은 찾은 어린이집 아동들이 눈놀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제천 건강체험 놀이터 '어린이체험관' 운영

제천시가 생활습관 병치기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한다.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위치한 어린이체험관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의 7세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체험과 어린이 눈놀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2회 차로 운영되며 1회 차에는 건강한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구강교육과 담배로 인해 망가진 폐 모형 관람하기, 고글을 이용한 가상음주체험 등 건강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2회 차에는 올바른 칫솔질을 해보는 구강체험 교육 "치카쿠카 캐릭터 탐험대" 프로그램과 편한 운동 체방사가 펼쳐주는 키 성장에 필요한 스트레칭 교육이 실시된다.

과산어성단체협 스피치 교육

과산군 어성단체협의회(회장 조보현)는 16일 과산어성회관에서 어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피치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협의회에 파리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8일까지 주 금요일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진단해 보고 체계적인 스피치 기술을 배울으로써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징검다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인가번호 제2015-3호

징검다리 협동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충북청주 17-29-09

시설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안전한 삶의 터전 실현

징검다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업,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일반 시설 하자보수 및 기능보장)

징검다리사회적·일반협동조합 : www.jinggum.co.kr
상담 및 문의전화 : 043)224-6464 / 043)223-4411

내년 7월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

권익 보호 앞고 '등급'낀 씌는 등의 부작용 커
개인사정 따른 복지지원… 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 료 복 지 지원을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을 보고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돼 지난 장애인인권해설사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거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휘일차이이서 장애인이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등급 이라는 낙인을 씌어 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 을 장애정도 로 변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등급제는 종합적 욕구조사 가 대신한다. 종합적 욕구조사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는 장애정도 라정 제도는 4급 이하 장애인도 종합적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우선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가족시설 입소지역 외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서비스부터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이후 장 애 인 전용 플랫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2020년) 장 애 인 연 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대상 포함 등 소득 고용지원(2020년) 순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또 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복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내 11개 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4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제4기(2019~2022) 충청북도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 용 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이다. 충북도민의 복지수요와 복지자원,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충청북도 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등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매노인 지문 등록, 치매안심센터서 가능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 공동 협업 추진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 전국 256개 센터 확대

앞으로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 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수학교 모교 지문사전등록이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임명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이 신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현재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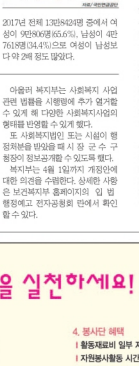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돌구 예합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응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관련 운영지침 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서신청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 성 제 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 성 해 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지원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전체 13만8424명 중에서 여성이 90만8064명(65.6%), 남성이 46만6360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국민연금 올해도 추후납부 신청 폭주

신청자 확대에 '한몫'
올해 10만명 넘을 듯

지난해 사상 최대 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올해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 1383명, 2월 1 90) 3372명 등으로 하향다고 신청한 이른바 남부여의 지만 가능하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여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의스의 비우지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하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령별, 성별 추납현황을 보면 이들은 사실혼 부부의 비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단일 사실을 반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거제대학을 패스트트랙을 구성하고 임신을 희망하는경우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난임 시술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법적 혼인 부부만 적용했다. 당시 입장에서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에게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률이 거의 다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사실혼 부부 등에게 난임 건보가 적용되면 평균 330만원에서 96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신선난자 4회, 동결난자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여성까지만 적용된다.

사회복지사 사업법 범위 확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을 마련해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로 열거할 수있도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중 3급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평생지원, 경남정보대(폐지예정 교육훈련원 이수한 지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배출인원과 현장수요가 모두 감소해 실효성이 사라져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복지사는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시 장 군 수 구청장이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 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부터 기초연금 月최대 20만9960원

9월부터 25만원 수준 인상
개정안 지난달 국회 통과

다음 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만원가구 기준 최대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이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6550원이던 기초연금액은 3910원 인상된 20만99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만8960원이던 기초연금액이 32만9568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현재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이며, 약 500만명 상당 노인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 대부분은 연금액을 4회(82.9%)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건의료비와 주거비 비중도 각각 22.8%, 7.9%로 조사됐다.

응답자 4명 중 3명(77.9%)은 기초연금 수급 후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으로 답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월 지원액 33만→128만원

22억760만원 예산 투입… 지원액 95만원 '대폭 인상'

장애 대학생이 학업과 봉학을 지원하는 장애 대학생 도우미 급여 인 한도가 지난해 월 33만원에서 올해 128만원으로 95만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이 지작된 200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급여는 월 25만원으로 출발했다. 이어 2016년 33만원으로 올랐다.

올해처럼 큰 폭의 인상(월 33만 128만원)은 처음이다.

올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2억760만원이다.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지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가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제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능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행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지방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제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동복지원 별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가족 모두가 행복한 청주시' 만들기 협약

지역 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식 개최

청주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에서는 2월 22일에 지역의 신나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청주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는 지역 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족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건강한 가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내용으로는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뢰 및 연계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

기타 각 기관의 사업홍보 등을 통해 가족에게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협약을 통하여 청주시 가족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이 삶이 좋은 청주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청주시! 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고독사… 그 손을 잡은 건 '관심'이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빠른귀심 · 대치로 오창 홀몸노인 생명 구해…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고독사 위기에 처한 할머니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던 할머니 A87세, 오창읍 괴정리에는 지난 8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복지사 희자 씨가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청주시보훈처 예산을 지원받아 50가량의 어르신들에게 방문과 안부 전화 및 매 주 지소득 가구인지 식사배달 사업을 해오고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였다니 A씨가 방안에 쓰러진 채 주변에는 토사물과 대변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고 어떠신 희미한 의식 상태였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A씨를 119구조대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할머니 A씨는 응급실로 이송 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남 삼아 주려고 신계서 선생님을 보내주셨나보요. 라고 말씀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복가노인시재가 급속히 고령화 시켰보. 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복가노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고독사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와 지단체 체 출범이 촉이가는 노인 고독사 가 넘도록 복지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고 전하였다.

청주용암성당 '꽃샘추위 난방지원' 사업

청주노인복지센터 지원사업 난방유 공급 전기장판 지원

청주노인복지센터(소장 김상우 이사장 신기는)는 소외된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혈동지원사업 실시하고 있다.

혈동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을 보내기가 힘든 어르신들을에게 연탄 및 난방유를 공급하여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을 할 수 없는 가정에는 전기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꽃샘추위 난방지원사업은 연말에 집중되는 혈동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동소녀사도와 함께하는 꽃샘추위 난방지원사업 은 올이 오기 전인 4월까지 난방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 43명을 선정하여 용암동성당 주임학교 야이들 총 30명이 부모와 함께 연탄 1,200장, 난방유 46리터, 조끼 33벌, 털모자, 내복 등 다양한 동절용품을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에게 2월 10일 토요일에 전달하겠다.

청주교구 용암동성당 최슬환 요셉 신자는 주일학교 야이들이 자는 거울, 쉬한마자원를 엮어 모금한 돈으로 청주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노인복지센터 소장 김상우 어사이장 신자는 꽃샘추위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마하겠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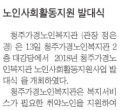
충주어울림센터 재활시설

최우수 A등급 기관 선정

충주어울림센터(관장 박용선)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시행한 2017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정신재활시설 중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정신재활시설 285개소를 대상으로 시 설 및 환경 제 정 및 조직운영 인 적 자 원 관리 프 로 그 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 역 사 회 관 계 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2014년~2016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2014년에 이어 3회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용선 충주어울림센터 관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센터 이용인과 부모,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 이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성장과 회복을 폭한 지역사회 내 입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

청주가경노인복지센터 (관장 정은경) 은 1.3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8년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을 개최하였다.

청주가경노인복지센터는 복지새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을 지원하여 상시 필보는 9999명복지기버인준) 사업단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환경지키미 사업단, 1 3세대 통합 체험 학습을 지도하는 초록자연학교 사업단, 지역사회 공원 환경 지키미 및 관리를 하는 그린누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용암사회복지관 꿈디자이너 친해지기 캠프

지역 중학생 양육자 대상 진로선택 도움주는 프로그램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26일부터 1박 2일간 4당산성 자연휴양림과 에버랜드에서 지역 내 홀로가족인 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꿈디자이너 친해지기캠프 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친해지기 캠프를 통해서 이번을 간에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1년 동안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월대보름을 기해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사라지기는 민속 문화를 계승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럼 깨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행사 개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상우)은 2월 정월대보름을 맞아 약 40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의와 함께 울림이 대형, 제기차기, 윷가락 던지기, 뿌요놀이, 소원풍선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진행되었다.

또 등굴레차, 곤고구마, 뻔데기, 오징, 봉어빵 등 다양한 추억의 음식을 준비하여 전통놀이와 더불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임은수 어르신시 직등, 70세은 측체처럼 너무 신나고 모든 것이 다만! 이라는 말과 함께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정월대보름을 기해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사라지기는 민속 문화를 계승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부모교육

양육서비 발표 경 험 공유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경임)는 2월 22일, 2018년 제1회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보사와의 가정위탁특정 참자에 대한 이해로 이무어졌고에 부모양육태도검사를 통해 올바른 양육방법을 안나했다. 또한 실제 위탁가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양육사례 발표를 통해 양육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탁부모를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교육 4시간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과 병원검역으로 등을 거쳐 위탁부모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예비위탁부모는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가정위탁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지만 그만큼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 한 이야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 개소하였으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 충북도 지정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위탁부모를 발굴하여 전기간 다 양하여 이웃은 아동을 배치하고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제2회 예비위탁부모교육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과 관련한 신청 접수와 자세한 안내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T.043)250-1226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청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심(心)카페' 개업

청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은 14일 커피와 쉼, 그리고 노래가 있는 심(心)카페 개업식을 진행했다.

이날 8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복대동 김수예 동장,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최창호센터장, 복대2동 통장협의회 신태드회장 등 이 참석해 심(心)카페 개업식 자리를 빛냈다.

심(心)카페 는 파랑새재솔단의 회복시의 동꽃보금자리 단원들이 마음을 모아 어르신 등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찾아 커피와 차를 마시며 즐겁게 놀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정해(심)자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의 후원과 20개의 커피 수익으로만 운영된다.

파랑새재솔단 회복심자는 심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힐링 하고 정해(심)가 넘치는 복대동의 서부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충주어울림센터 재활시설

최우수 A등급 기관 선정

충주어울림센터(관장 박용선)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시행한 2017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정신재활시설 중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정신재활시설 285개소를 대상으로 시 설 및 환경 제 정 및 조직운영 인 적 자 원 관리 프 로 그 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 역 사 회 관 계 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2014년~2016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2014년에 이어 3회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용선 충주어울림센터 관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센터 이용인과 부모,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 이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성장과 회복을 폭한 지역사회 내 입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

청주가경노인복지센터 (관장 정은경) 은 1.3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8년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을 개최하였다.

청주가경노인복지센터는 복지새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을 지원하여 상시 필보는 9999명복지기버인준) 사업단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환경지키미 사업단, 1 3세대 통합 체험 학습을 지도하는 초록자연학교 사업단, 지역사회 공원 환경 지키미 및 관리를 하는 그린누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진천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일특장'

센터 등록회원 · 가족 · 자원봉사자 참석 가족교육 실시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상진)는 2월 26일 센터 등록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만성질환자들에게 여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통해 회원 및 가족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웃음학습 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전반부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고, 후반부에는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웃음짜깁기 활동의 의미를 되이하고 알으으로 여가 생활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체험을 통해 의미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상진)는 여가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실고 있지만 쉼없과 가족들이 여가를 체험하며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족들이 앞으로 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흥덕건강복지센터 개소식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월 22일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기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황경호 청주시의회 의장 외 보훈처 서지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및 해공의료재단 오병진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북병원생활장 도장수이 수력기관으로 선정되 이후 8월부터 조직 및 시설정비 등을 통해 활동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1. **모집대상** –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사업기간** – 2017. 9. 1 ~ 2018. 8.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함
4. **프로그램별 안내**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호스피스교육	미술치료	웃음치료	의사소통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8명/6회기	30명/1회기	30명/2회기	10명/9회기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6. **지원** –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ocial Welfare Council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수당법 · 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 시 심방,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 심리 의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

가중 신고자 포상제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중증장애인 의료기계 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유한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원 직원 • 지역센터(센터가정보호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 및 사후조치 상황에 대출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사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 치 운 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위 마저대를 확보

3. 모자보건법 개정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법치를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모자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확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권리건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보칙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체도를 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연번	법 률 명	주요내용	시행일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정안 대안)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지원 시행' 추가, 공공보건의료기관설치 및 운영기준이 '•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센터(보건소 제외) 추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 확대 • '보험자간분쟁 해결 중앙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센터(보건소제외) 사업 추가	공포한 날
3	노인복지법 (제정안 대안)	• 학대피해노인 전문쉼터에 대한 간학인 학대 조항 신설 •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이 있는 장소 장애 시 쉼터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사후관리 근거 마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등	공포한 날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대안)	• 장기요양기관 설치 공정위, 종사자 및 급여 수급자 등의 직무 인정과정 실시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5	모자보건법 (제정안 대안)	• 산후조리 신종인 진정관리, 감염 예방 등 준수사항 위반시 벌 금 부과사실, 산후조리원등 명칭, 입주 상황 등 공표근거 마련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공 표 사항에 관한 사항 등 위반한 사항 등 공표근거 마련 등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안)	• 피성년후견인 등 부여 결격자간 제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보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가 장학기관 제외는 종전 보기가 상향 시 시행
7	중장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안 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중에 인한 장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중장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구매계획 및 실적 공표는 시행일이 속한 해부터 적용하되 구매계획은 전년도, 구매실적은 당해 년도 실적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 국가시험 방법 등 변경 시 시한 준비 의무화 등	공포한 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민생관련 법률안

1. 아동수당법 제정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가구 전체 기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자를 상실시키장, 국적상실 등받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원액: 130억원 고시일 신청하면 11월 지급일에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2018년 이 12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12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원대상: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인 고, 11월 29일에출생일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함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 가나 온라인(가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별도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2. 기초연금법 개정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6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재정에 아바지하고 현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4년 7월 도입된 후로,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67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 원 15.4월 20만2600원 16.4월 20만4010원 17.4월 20만6670원

- 급변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3. 장애인연금법 개정

올 9월부터 현재 3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에 여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10년 7월 도입된 후,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 분류체계로 변경된다.

- 그간, 감염병은 발 또는 사용 때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근원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일으포는 이를 질환의 심 각도 전 파력 및 격리수준 에 따라 급용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는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봉상 손하기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 급 신고 시기 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되었다.

- 형량제 감어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하였으며,

*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 가능

-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갚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금 현 40%에서 60%/제약반시 100%/ 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정 하였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연번	법률명	주 요 내 용	시행일
1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일부 조기 마련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명확화 ① 수급대상 가구원 경제적 수준이 2인 가구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명시 ② 아동수당 지급 결격사유 명시 (참고 : 아래 기재분) 개정안(정부안) 지급 대상 : 0세 ~ 만 6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가구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2018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 포함) 지급 결격사유 :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입국 시 지급) 지급 방법 : 보호자 등 신청 시 지급 지급 기간 :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1년이상 유예기간
2	기초연금법	• 기준연금액을 1만원 25만 원으로 인상	1년이상 유예기간
3	장애인 연금법	• 기초급여액을 1만원 25만 원으로 인상	1년이상 유예기간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일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안 : 장기요양 제도 운영비 일부) • 연장으로 대상 확대 및 일정 범위 개선 ① 연장으로의 대상 범위를 기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② '일기정부기도 대상 일정, 기준을 사회복지법, 연장으로복지시 적정 대상을 일일복지로 확대하고, 일정의 일정으로 일기 일정 일정 일기 등는 일정과정에 있는 한가들 로스쿨과정을 이용 시 과정	공포 후 예시
5	모자보건법	③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장으로를 시행하기 일기는 시 일정과정 시 일기 대상으로 일정 일정 이해하기 위해 1일만 등 위해를 확인 로스쿨으로 일기 이 과정 '일기정부 일정과정 이후 정당보건 정부	2018년 1월1일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현재 일반인 특성을 감안하고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분류체계로 변경 - 현행 군별 체계 - - 개정 군별 체계 - • 감염병 신고제도 개편 - 감염병 감시체계 및 신고시기를 감염병의 임상나타나 면역력도 고려하여 조정 - 현행 신고체계 - - 개정 신고체계 - • 감염병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의학 보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의사 이외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사 의료기사

기획

지금 충북 경찰은 열공 중

전찬근

지는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일선 경찰서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응대와 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충북지방경찰청 본청 직원교육, 충북 내 각 경찰서 수사팀장 교육, 신임 입문 순경 교육, 원주지역 10개 지구대 근무자 교육, 영동경찰서 전 직원교육 2회, 도담 15개 경찰서 수사관 교육까지 적지 않은 교육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선 지구대 교육은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교대시간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선 지구대에 대한 교육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첫 시책이고 담당자는 귀함과 주었습니다.

청문감사담당관실의 부서장(총경)은 우리부서가 먼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부서원 전원과 함께 교육을 받고 토론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민원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가장먼저 응대하는 현장 지구대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계획을 현장 일선 경찰서와 함께 기획한 청문감사담당관의 이 결감과 이 경위가 열정을 보면서 총경 결재를 바라보는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영화제에서 수백편의 영화와 경쟁하여 충북지방청이 출품한 인권영화 "딴딴이가 주수수연나물을 수상하도록 지도한 이 경위는 퍼 일선 근무자의 인권감수성이 돋라가야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며 교육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뜨는 생각은 이번 일련의 교육 과정이 전시행정적인 교육이 아닌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실무자가 받아들이는 인권 감수성이 같지가 항상 쉽 수는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구성원의 의식도 점차 변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러한 노력이 총체 경찰단이 아니라 충북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관까지 확대 된다면 언젠가 사건, 활 금 피아 사건, 타이어 노예, 리면 노예, 수박 노예, 호박 노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인권교육 '충북'

현장 중심 교육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주 도심의 경찰서의 그때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경찰서의 일선 지구대를 방문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경찰을 대표하여,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일선서의 경찰관이 저희는 행태로 점검을 하는 것이었는데,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검을 하였다는 것있다. 한 예로 일선 경찰관에게 휴대폰 제원을 부탁하고 전일동이 끝날 때 까지 휴대이보만 이동하고 제원 하드웨 하였으며, 일정이 끝날 때 까지 휴대이보만 이동하고 제원 하드웨 하였으며, 일정이 끝나 는 시점에 경찰관 개개인 에게 그때 그때 논의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여 직접 불편함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것있다. 또한 사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차장에서 만 원을까지 점검 받은하게 부탁하고 불 수도, 세상이 변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지난해 충청북도 청문감사관실은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장애 당사자 두 분을 소개 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 한 분과 휠체어를 타시는 한남윤 소개 해 달라고 내용이었는데, 저도 기쁠 것이 그분들과 함께 일선 경찰서에 대한 편의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달라도 같은 입장을 받동이 동일노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달라도 같은 입장을 받동이 동일노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일선 노동을 하는 황주시 공무원과 다른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달라도 같은 입장을 받동이 동일노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관한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일 등의 공사의 연금 복도에서의 이동권 복보를 위해 이모 도의원(교육위원회)과 행정 실무자간의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과정상에서의 이견은 있었지만 복원은 건축물을 기지고 보행 약자의 편의를 위해 서보 어리를 유형별 대등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전 매뉴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상황별 대처 능력 함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과 위기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행동 대응 능력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위험 사정에 대한 교육과 실시, 안전 보장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변하며 옹호하다고 항 습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본 댈 위험함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본노 조정 기술 과 비폭력적 방어 기술을 교육한 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이 유형화된 특례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도 마련하여 상해 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기관의 CCTV 설치 지원, 녹취 전화기 지원, 종사자보호시 처우 지원 할 조례에 신변 안전을 위한 조항 을 보완 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누군가 이 입을 다신엔 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누군가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에 취임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신임 회장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한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마련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신변을 보호받으며, 온전히 복지 가치를 실현하고 이용자들의 삶의 변화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우리는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기획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박 미 영

청주시간강기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근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 사회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빠른 성장은 진영간 갈등 경쟁을 부추겼고 성장 이면에 함께 자리한 분열과 이기심은 타인에 대한 존중 따위는 내팽개쳐진 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우선 일한 삶이 가치로 내세우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상실한 채 달려온 우리는 점점 더 치열해져 지친다는 외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적 불평 기능을 상실하게 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을 급속히 잃어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원인 때문일까? 반노 조 짐을 하지 못하고 매우 공격적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2년 김 제 선 유 재 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61%가 1년 동안 클라이언트 브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내 폭언, 폭행, 성폭력 등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반면하게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가정에서 활동하면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것에 이들은 폭행한 범죄,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상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장시절한, 무릎 등 동시부 분재를 가진 이용자들의 증가와 더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유 없는 폭력 의 위험 수위도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험한 욕설의 경험과 불리적 폭력 상황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뒤흔들게 되어 소진에 이르고 결국 현장을 등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폭력을 경험하고도 가슴의 병다른 조치 없이 스스로 감당하게 개별적인 대안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 가운데서 CCTV 설치와 폭상 에 비상벨 설치, 가정 방문 시 협의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시행하고는 있지 , 종사자들의 목에 호루라기를 걸어주었다는 어느 관장님의 센스 있는 대처까지 개별적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종사자들에게 행해지는 이유 없는 폭력 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때문에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생업을 담보로 온갖 폭력과 협박 속에 서 있는 우리 종사자들을 방관하면서 더 이상 개별적 대안으로만 안내하며 견뎌내라고 말겨두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 도 적 정치가 연구되어 피해 현황의 유형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전 매뉴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상황별 대처 능력 함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과 위기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행동 대응 능력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위험 사정에 대한 교육과 실시, 안전 보장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변하며 옹호하다고 항 습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본 댈 위험함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본노 조정 기술 과 비폭력적 방어 기술을 교육한 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이 유형화된 특례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도 마련하여 상해 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기관의 CCTV 설치 지원, 녹취 전화기 지원, 종사자보호시 처우 지원 할 조례에 신변 안전을 위한 조항 을 보완 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누군가 이 입을 다신엔 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누군가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에 취임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신임 회장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한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마련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신변을 보호받으며, 온전히 복지 가치를 실현하고 이용자들의 삶의 변화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우리는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기획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충북 만들겠습니다

이 원 기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의장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복지종사자 지속가기 다양화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영역 또한 광범위해 지면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과 활동영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또한 광범위해 지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 없이는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 없이는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전국적으로 9십만명을 넘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약 3만8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어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에서 충북지역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는 턴저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감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은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으로 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동일노동 · 동일임금 원칙 지켜줄 '단일임금제'

재충전 할 수 있는 '안식휴가제도' 단계적 도입

공공부문 사회복지사 충원 확대 · 근무환경 개선

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 낮은 분야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일노동을 하는 황주시 공무원과 다른 사회 복지사들의 임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달라도 같은 입장을 받동이 동일노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관한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일 등의 공사의 연금 복도에서의 이동권 복보를 위해 이모 도의원(교육위원회)과 행정 실무자간의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과정상에서의 이견은 있었지만 복원은 건축물을 기지고 보행 약자의 편의를 위해 서보 어리를 유형별 대등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전 매뉴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상황별 대처 능력 함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과 위기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행동 대응 능력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위험 사정에 대한 교육과 실시, 안전 보장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변하며 옹호하다고 항 습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본 댈 위험함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본노 조정 기술 과 비폭력적 방어 기술을 교육한 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이 유형화된 특례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도 마련하여 상해 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기관의 CCTV 설치 지원, 녹취 전화기 지원, 종사자보호시 처우 지원 할 조례에 신변 안전을 위한 조항 을 보완 하는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누군가 이 입을 다신엔 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누군가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에 취임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신임 회장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한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마련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신변을 보호받으며, 온전히 복지 가치를 실현하고 이용자들의 삶의 변화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우리는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1:1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주요쟁점과 법률문제발생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원할한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5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공탑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원명만 변호사

Q. 저는 신입사원 회사 자리에서 상사가 부장님께 한잔씩 따라 드리라 하며 술을 억지로 강요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성희롱이 아니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지죠. 성희롱은 크게 성적 언동 이 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큼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관례는 성적 언동 등 이런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욕설,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식적으로 성희롱 수치심이 있을 정도의 성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계 한 잔씩 따라봐, 또는 이쁜 반모라면 한 잔씩 줄여, 등의 표현이 있기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송북도회]2018년 4월 도민교육일정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과정

- 교육기간 : 4월 3일(화)
- 교육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30명)
- 교육장소 : 충청북도 지적연수원 도민교육관 제12강의실
- 교육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사례 감의 등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서로의 모국 문화 이해하기

- 교육기간 : 4월 5일(목)
- 교육대상 : 귀화도민, 도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60명)
- 교육장소 : 충청북도 지적연수원 도민교육관 제12강의실
- 교육내용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보조단체(사업자) 심부능력 향상과정 3기(남부권)

- 교육기간 : 4월 6일(금)
- 교육대상 : 보조금지원단체(개인)(30명)
- 교육장소 : 충북 도립대 미래관 소회의실
- 교육내용 : 예산 회계 실무, 사례로 보는 회계 감사,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 등

주한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기

- 교육기간 : 4월 10일(화)
- 교육대상 : 희망도민(30명)
- 교육장소 : 충청북도 지적연수원 도민교육관 제12강의실
- 교육내용 : 주한 외교관 초청 강연 등

[송북도청]국민신청심판제 안내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 – 3월 30일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신청내용 : 공개를 원하는 충북도 소관 사업

신청방법 : 국민신청심판제 신청서 작성 제 출

유의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도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접수돼 경우 정책실행제 이상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상담지원사업 담당자) ☎ 02-2077-3964, 396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명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간 : 18.4 – 18.12 (9개월 간)

사업내용(상세내용 (첨부1) 파일 참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해외진출 고도화 패키지

①패키지1 : 무역 교육 및 이동 KOTRA 통한 수출역량강화

②패키지2: 수출전문위원 지정 및 바이어 매칭 통한 수출 첫걸음 지원

③패키지3 : KOTRA 해외무역관을 이용한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개별수요에 맞춘 선택형 서비스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아마존 US 인큐베이팅, 아트플라보

참가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업팀에 한정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3월 30일(금)까지

[무료매매닫]2018 Microsoft 창 에 어 린 이 청소년 전문무기 지원사업 안내

신청 기간 : 2018년 3월 19일(목) ~ 4월 13일 (금)

지원 항목 : 오토보패키지 (오토보철제어와 토도드라이브지을 함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 등록어린 어린이

지원인원 : 총 9명

심사 기준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신청 방법

-사비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비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음 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 신문봉사단

월간 충북사회복지신문발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선, 이하 협의회)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김정숙)은 2월 27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충북사회복지신문 3,000여부 발행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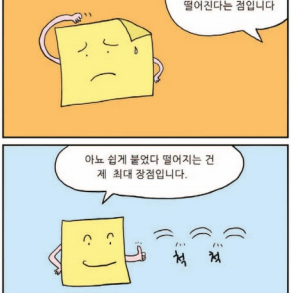
신문봉사단은 1999년부터 월 1회 발행되는 충북사회복지신문 3000여부를 발행하는데 직접하인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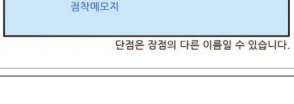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월 1회 사회복지 관련 정책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소식 ,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전문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연구단체 등 전국으로 배포한다.

복 / 지 / 만 / 평

장점과 단점

이창신 www.bokmani.com





단점은 장점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충북아동복지협회에 이정순씨

충북아동복지협회는 2월 23일 충회에서 이정순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정순 회장은 충북혜능보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청주 YWCA 여성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한국 아동복지협회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이들이 삶고 있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지원이 다르다 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민 관 이 소통하면서 충북의 원장님들과 힘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내덕노인복지관장에 이창열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청주 내덕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장 용화사) 신임 이창열 관장이 2월 공시 취임했다.

이창열 관장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과 함께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관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세대가 한솔에 바탕하여 비복지서 인정받 함께 를 실현함으로서 삶기좋은 늘봤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원 봉사자 모집

주거환경개선
관리센터 : 청주시희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월 – 12.31
전화번호 : 043-298-0199

병원내 이동보조
관리센터 : 청주시립요양병원
활동기간 : 2.5 – 8.3
전화번호 : 043-216-9810

우체국공익재단지원 장애가정청소년 상장-mentoring 멘토 모집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 3.1 – 11.30
전화번호 : 043-252-9720

무지개도서관 3월 인문학특강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3.28 – 12.31
전화번호 : 043-237-5544

교육봉사 및 환경미화
관리센터 :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 운하어린이집
활동기간 : 2.26 – 12.31
전화번호 : 043-266-0607

작업보조및 프로그램보조
관리센터 :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
활동기간 : 3.2 – 6.29
전화번호 : 043-288-5174

청주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시설물 정리
관리센터 :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활동기간 : 4.24 – 4.24
전화번호 : 043-263-8366

경로식당 무료배식봉사
관리센터 : 현암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3.1 – 5.31
전화번호 : 043-266-0957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